

짧았지만 강렬했던 '20세' 강백호

성인 야구 대표팀서 활약...국제대회 자신감

지난해 KBO리그 신인왕...2년차 징크스 無



16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경기 7회초 2사 1,2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친 대한민국 강백호가 기뻐하고 있다.

성인 야구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활약한 강백호(20·KT)가 국제대회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7일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일본에 3-5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승에 머물렀다.

2020 도쿄 올림픽 출전권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는 냈지만 대표팀은 일본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아쉬움도 남겼다.

대회 2회 연속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젊은 스타들의 활약은 대표팀에게는 소득이었다. 이정후, 김하성 등 베스트 11에 뽑힌 선수들보다 기회는 적었으나 강백호도 제한된 상황에서 타율 0.286(7타수 2안타) 3타점 등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18시즌 KBO리그 신인왕 강백호는 올해도 2년 차 징크스 없이 타율 0.336 13홈런 65타점으로 맹활약을 이어갔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KBO리그와 달리 대표팀에서는 외국의 생소한 투수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타자들이 불리하다. 하지만 강백호는 대회를 앞두고 "어렵긴 하지만 그 선수들도 나를 처음 상대한다. 부딪혀야 한다. 던지는 것은 다 똑같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강백호는 지난 1일 푸에르토리코와의 첫 평가전(3타수 1안타 1타점)에서 큼직한 2루타로 타점까지

올리며 예열을 마쳤다.

본 대회에서 강백호는 주로 대타로 출전하면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비록 교체 출전한 경기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선발 출전했던 16일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최종전에서는 4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실전 감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던 상황이지만 강백호의 타격 센스가 빛났다.

강백호의 활약은 한국의 추격을 이끌었다. 경기 초반 일본이 앞서 나가던 가운데 4회초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이어 6-9로 추격하던 7회초에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기도 했다. 아쉽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으나 강백호의 활약으로 한국은 마지막까지 일본을 압박하며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 중심타선으로 나선 박병호(타율 0.179), 김재환(타율 0.160), 양의지(타율 0.087) 등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강백호의 활약은 향후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대표팀에 긍정적인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어12 결산①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감독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대5로 패배한 후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빛' 올림픽 본선 진출 '그림자' 한일전 2연패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막을 내렸다. 김경문 감독이 이끈 한국 야구 대표팀은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쳤다. 2020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컸다. 한국은 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일본에 3-5 역전패를 당했다. 1회초 김하성의 투런홈런, 김현수의 솔로홈런으로 3-0 리드를 잡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2015년 초대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했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슈퍼라운드 전적 3승2패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 대만(2승3패)과 호주(1승4패)를 제치고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김경문호의 1차 목표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이었다. 도쿄올림픽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만에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다. '다넌팅 챔피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 빠질 수 없었다.

슈퍼라운드에서도 출발은 좋았다. 첫 경기 미국전에서 승리한 것. 대만에 0-7 참패를 당하면서 위기에 몰렸으나 멕시코를 7-3으로 꺾고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또한 결승 진출도 확정돼 연이틀 한일전을 치르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번 프리미어12 김경문호의 '빛'이다. 그 다음 회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중심 타자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한일전 2연패.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연거푸 놓쳤다.

결승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16일 열린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일본에 8-10으로 패했다. 1-7로 뒤지다 6-7까지 따라붙었으나 끝내 역전에는 실패했다.

아쉬운 패배를 결승전 승리로 되갚으려던 것이 김경문호의 계획이었다. 주전들을 대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던 16일 경기와 달리 17일 결승전에는 정예 멤버가 출전했다. 그리고 1회말 홈런 2방이 터지면서 3-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힘에 밀려 역전을 허용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3이닝 4실점으로 평소 담지않은 부진을 보였고, 타선도 일본의 막강 불펜에 쫓겨 2회부터 9회까지 8이닝 연속 무득점했다.

일본은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이후 10년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맛봤다. 한국은 일본의 기뻐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또한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이어 한일전 4연패를 당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결승전 패배 후 김경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한 것은 인상적"이라며 "좋은 선수들이 보였다. 준비를 잘 해서 내년 8월(도쿄올림픽)에는 더 강한 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욕을 다짐했다.

손혁 신임 감독이 꼽은 롤모델 '힐만·염경엽 감독'...이유는?

"힐만, 항상 긍정·염, 미리미리 준비된 자세 강조"

대표팀 부진 박병호 향해 "만회할 기회 있을 것" 격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손혁 신임 감독이 트레이 힐만 전 SK 감독과 염경엽 SK 감독을 롤모델로 꼽았다. 프리미어12에서 극도로 부진했던 중심타자 박병호에 대해서는 휴식을 주문했다.

손혁 키움 감독이 1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모두와 소통해 한 단계 나은 성적을 만들 생각"이라며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투수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감독은 선임 직후 장정석 전 감독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축하한다고 해주셨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어지고 있는 팀 내 부정

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고민만 하다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팀에는 가장 좋은 어린 선수들이 많다. 그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책임자로서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키움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손혁 감독은 그러면서 롤모델로 힐만 전 SK 감독과 염경엽 SK 감독을 꼽았다. 손혁 감독은 지난 2년간 SK 와이번스 투수코치를 지내며 차례로 두 감독과 함께 했다. 염경엽 감독과는 넥센 히어로즈 시절에도 투수코치, 감독으로 지낸 바 있다. 손혁 감독은 "힐만 감독은 저에



게 항상 긍정을 강조하셨다.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나누라고도 말씀하셨다"며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염경엽 감독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떠올렸다.

한편, 손혁 감독은 전날 막을 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

표 4번 타자로 출전에 최악의 부진을 겪은 박병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 쉬라고 이야기 할 계획이다. 안 좋을 때는 계속 그 쪽만 생각나게 된다"며 "만나면 훈련은 둘째고 우선 쉬라고 말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병호는 다시 또 나라를 대표해서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중심 타자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명품하는 행복의조민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